

- 본문 : 에베소서 2장 8~10절
- 제목 : “구원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술작품을 재미있게 관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해당 작품을 준비하는 작가의 배경과 생각과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작품의 의도와 목적에 깊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분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언어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배반하는 우리를 다듬어가시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1.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어떤 솜씨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2.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요청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엡 2:8)
3.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우리의 존재에 대해 ‘자랑’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이러 말하십니까? 그리고 그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엡 2:9, 삼상15:17)
4.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게 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엡 2:10/공동번역)

· 삶의 열매를 거두며

5. 우리는 사실 자랑하는 삶을 끊어내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면서 겸손한 자로 공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공사를 끝내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인내하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